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마 5:1-6)

The Blessing of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Matt. 5:1-6)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보면 참으로 불공평하고, 정치적 불의, 사회적 불의, 윤리적 불의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에 관한 것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tsedeq, tsedeq’라고 읽는데, 구약에서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 dikaiosune’로 읽으며 신약성경에 200번 이상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의’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박노철 목사

The world that we live in, in some ways, is filled with injustice, political unrighteousness, social impropriety, and immorality. However, Jesus reveals God’s word to us who are living amongst these problems in the world.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Matt. 5-6).

It is a marvelous paradox. Here, “hunger and thirst” does not relate to flesh, but righteousness. The word, “righteousness” is read in Hebrew “tsedeq”, and appeared 500 times in the Old Testament. It is also read as “dikaiosune” in Greek which is a very important word appearing over 200 times.

Jesus explains “righteousness” in this text, in two ways.

1. 윤리적 정의를 이루는 의

윤리적 정의 안에는 정치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문화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나 고아,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유린된 인권을 회복하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불의를 슬퍼하고, 정의가 이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 궁극적인 의 - 예수 그리스도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그분만의 속성이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계 16:7).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이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에 대해 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리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은 만족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워질 때에 만족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배부르다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배부름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의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마 6:33).

이같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 The righteousness that develops ethical justice

Ethical justice involves righteousness of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Jesus says that we should take care of the poor, the widows, orphans, drifters, and disadvantaged groups, to bring fairness, recover personal rights that are being infringed upon, and establish justice both nationally and individually. Moreover, Jesus says that we should be concerned for social injustice, and blessed are those who pray continually for establishing justice.

2. The Ultimate righteousness - Jesus Christ

‘Righteousness’ is God’s nature and only his unique attribute.

“Clouds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Psalm 97:2).

“Yes, Lord God Almighty, true and just are your judgments” (Rev. 16:7).

Like this, as the righteous of God came to this earth in form of a human body, and died on the cross, then He, Jesus Christ, became our righteousness.

Therefore, if we are t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we must hunger and thirst for the ‘righteousness’ that was established by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on the cross.

My beloved Christians!

There is no one who hungers and thirsts for righteousness among people living in the world. Most people struggle to be filled with such worldly things as money, power, popularity, and honor for their righteousness. However, their hunger and thirst can never be filled with anything that will truly satisfy.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human life is filled with only God’s righteousness and the grace of Jesus’ cross, it will be satisfied.

Jesus tells us that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will be filled. To be filled means to be satisfied. To be filled ‘kortazo’ in Hebrew involves both to be filled in spirit and to be filled in reality.

I hope all of us long to worship God, share a deep fellowship with Him in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and to be satisfied with God’s righteousness. He promises that all the things we need will be given to us as well (Matt. 6:33).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receive and enjoy these bless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11월8일(화) 오전9시, 서울교회에서

제4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정기 노회에서는 2대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목사 서약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제 49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는 본당에서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갖고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회무처리를 한 후 다시 본당에서 목사안수식에 이어 폐회예배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 노회 개회예배 시간 중 새회원 소개 순서에 박노철 목사가 목사서약을 하게 된다.

은사발견 세미나

1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강: 11월6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금요기도회에서 특강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세미나가 박노철 목사가 강사로 선 가운데 은혜 중에 열린 바 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은사발견 세미나가 2회에 걸쳐 각각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 내년 도 섬김위원 봉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본인의 은사에 합당한 봉사신청을 할 수 있기 바란다.

2011 사명자 대회 22일째 진행 중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 열열이 기도(다니엘 기도)

지난 10월 9일(주) 시작된 2011 사명자 대회가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연속 기도는 맡은 자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하므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0

월 28일(금) 오후 7시 현재 1106명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였으며 성경은 6독 중에 있다. 찬양예배 시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매주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는 대·청년부 순서이다.

2012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월10일(목) 오전 8시40분~오후 6시05분 501호

2012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당일인 11월10일(목)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05분까지 501호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추어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기도 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고등부 지도 이종진 목사의 인도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일 12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604호에서 갖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수험생을 위한 공동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시어 대학진학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2. 두려워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소서.
3.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소서.
4.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소서.
5.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2012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및 입학원서 접수

2011년 11월 5일(토) 오전 10시 30분 호산나대학 세미나실에서 2012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전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부모 및 교사 1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2012학년도 입학과 관련한 학교 전반적 안내, 입학전형 및 입학 시험 등과 관련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스쿨버스 운영 및 기숙사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학교 라운딩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개교 5주년을 맞이한 호산나대학은 서울교회의 기독교 정신과 장애학생들의 Better person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꿈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호산나대학의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31일(월)~ 11월 11일(금) 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6]

(문 23) "왜 하나님은 창17장에서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답) : 창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후손들이 할례의식을 이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나라"(11)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자는 언약의 배반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14)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할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롬4:9-10) 아브라함도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창15:6, 17:2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롬4:11)고 했습니다.

할례의식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와 증거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는 날 동안 완전 헌신을 피차 약속한 표로 결혼반지를 증거를 삼아 교환하듯 신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을 자기 삶을 베풀어 피를 흘림으로 표를 삼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할례의식으로 구약에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이나 자신 또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할례의 기능에 관하여 골2:11-13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할례는 죄 지은 육의 몸을 벗는 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할례는 거룩으로 헌신케 합니다. 모세는 신10:16에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된다"(레 26:41)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받을 벌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셋째, 할례는 신약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구약 성도에게 있었던 표시였습니다. 구원의 자녀로 양자되거나 받아인 표가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의 미래 속죄 사역은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할례와는 별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부활의 승리로 주어진 구원 은총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듯 새 언약 하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영적 할례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2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2011년 11월 5일(토) 오전 10:30~12:30

호산나대학 2012학년도 입학설명회
주최: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주최처: 호산나대학 501호 세미나실

문의: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문의: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 호산나대학 입학지원팀 (02-261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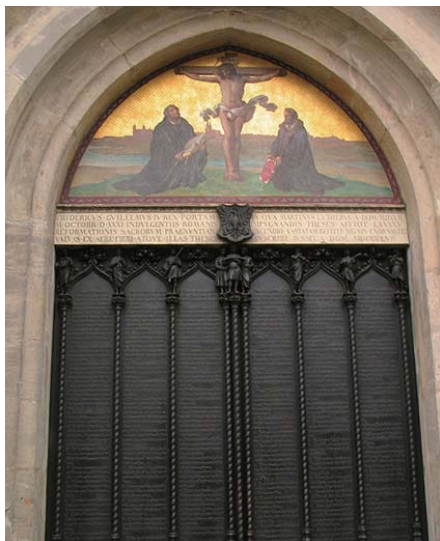
종교개혁주일

‘값싼 은혜 선포’로 둔갑한 중세의 ‘면죄부’

오늘은 제494주년 종교개혁주일이다. 순례자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재진 목사의 특별기고문을 신는다.

(편집자 주)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M.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토의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금년은 종교개혁 494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 설교자들 가운데는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이 오히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이종윤 목사님(서울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 학술원 원장)을 중심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항을 제시한 비텐베르크 교회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돈을 주고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조상, 곧 부모님, 조부모 그리고 그 외대의 조상 누구의 죄도 면제되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면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은 ‘면죄부’만 사면, 회개할 필요도, 선행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죄 사함의 은총을 돈으로 팔았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논제’ 제1항에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 4:17)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ominus et magister noster Iesus Christus dicendo ‘Penitentiam(Mt 4,17) agite etc.’ omnem vitam fidelium petentiam esse voluit.”(여기서 ‘fidelium penitentiam’ 이란, 신앙에서 우리나라 온 깊은 참회의 삶을 의미한다고 계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교황은, 모든 죄의 사면권(赦免權)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마 9:6, 이밖에 여러 곳), 이 세상 물질(돈)으로 죄 용서를 위하

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싸게 팔았던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의 설교자들을 향하여, “교황의 면죄부 써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제21항)고 선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들은 ‘회개의 선포가 없는 설교’를 통하여 - 오로지 ‘변영’, ‘일등’, ‘제일’, ‘축복’, ‘평안’, ‘큰 꿈’ 등의 수식어를 붙인 축복만을 선포함으로써 -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값싸고 천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설교들은 많은 기독교 평신도들을 - 자신의 죄와 잘못된 회개하지 않으면서 -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기복(祈福)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성도들의 깊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없는 참된 영적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pax’, ‘평안하다pax’ 외치는 설교자들에 대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평안’ 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겔 13:10,16; 렘 6:14; 8:11; 살전 5:3)”(제92항)고 계시하였다. 반면에 루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crux, 십자가 crux’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이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제93항)라고 계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설교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 하나로, - ‘삭개오’처럼 뼈를 깎는 회개의 삶 없이(눅 19:8) -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신의 모든 죄를 ‘값싸게’ 용서받고자 하는 평신도 마음 역시, ‘면죄부’를 산 중세 가톨릭 교우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면죄부’와 ‘값싼 은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를 촉구하였던 루터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는 길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주건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지난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정황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재진 협동목사

시명자의 기도

주님이 쓰실 도구

김예환 권사(제1권사회 회장)

설립기념일 50일전 사명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의로운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어, 이를 믿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어 기도하며 복음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진실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수고의 땀이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라 하지 않을까요? 나를 낮추어 겸손함을 잃지 않고 더 낮아지기를 기도로 다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천국시민 양성’에 있음을 압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의 허물을 벗고 나 자신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언약을 통해 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준비해 나갑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기도 제목은 이미 연초부터 권사회가 합심하여 계속기도하는 중입니다.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항상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다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김광통 집사(문촌고등학교 교장)

파란 가을 하늘과 곱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낄 여유 없이 시간과 잠에 쫓기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을 보면 정말 장하다는 생각이 든다. 11월10일 수능 시험 날까지는 열흘 남았다.

지금부터는 단 1점이라도 자신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상위권은 자신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학습과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한 심화 학습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역별로 배점이 높은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수리 영역은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긴 지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 탐구 영역은 문제풀이를 통해 취약점을 체크하고 반드시 해결하

라. 특정 단원이나 문제 유형에 약점이 있는 경우 완전히 해결하라. 실수를 최소화 하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중위권은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필요하며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성적이 오른다.

수험생들이여!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힘을 내라. 힘들고 괴로운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일이다. 남은 기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라. 공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적절한 잠과 피로 회복이 중요하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학 진학의 길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그리고 특기 적성과 입학사정관제로, 수능시험 후 논술고사와 면접으로 진학하기 등 다양하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 학생의 길이다.

서울음악 교실 다음 주 개강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준비과정인 제8기 서울음악교실(지도: 박정선 장로)이 다음 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개강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0일(주) 청파동교회에서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31일(월) 평택대학교 종교개혁피어슨학술강좌에서 강연을 한다. 11월 4일(금) 1교단다체제 임원회를 소집한다. 11월 5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수상: 14교구 임진호 학생(사랑부, 임규현 목사 장남) 전국학생기능경진대회 다과요리부 은상(교육부장관상)
- 개업: 16교구 이민주 성도(청년2부)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상가 1층3호 허브하임(010-3919-1959)
- 이사: 16교구 박석환 성도 정영실 집사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117동 1502호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10.30) 엘리야선교회(11.6)
- 금주의 식사: 김정훈 집사, 김희정 집사 가정 (김상식 집사, 이순례 권사 장남 가정) - 부모님 금혼식을 감사하며

천국시민양성-성경암송대회 수상

엄마, 로마서가 너무 좋아요

김진아 집사(안철수 어린이모)

아이와 책을 읽는 중에 대화에 나가 메달과 상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자 자신도 대화에 참가해서 상도 메달도 받고 싶다가에 성경암송을 권했습니다.

마침, 그때 유치부 시간 중 성경암송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친숙하게 암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작과 함께 철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쉬운 성경을 참고해가며 성경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해준 아빠, 엄마의 작은 수고와 암송 준비 중에 하기 싫은 표정이 보이거나 힘들어 할 땐 암송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준것...

이 모든 부분들이 모여 큰 상을 받을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온라인으로 성경을 듣는 중에, 11장등고 12장을 듣기에 제가 아이에게 우선 11장만 열심히 들으라고 권하자 아이가 제게 말합니다.

“엄마, 로마서 12장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 보는거예요.”

아이와 함께 성경말씀에 대해 나누고 외웠던 그 과정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니 허전한 마음까지 듭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성경필사'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와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다시 시작해 보려합니다.

철수야~~~ 이젠 필사로 성경을 접해보자!

2011 하반기 화요 정오음악회- 11월 1일(화) 박소인 오르간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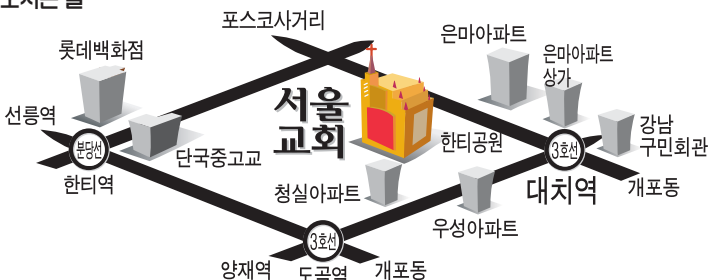


독일 쾰른 국립 음대 오르간과 졸업
독일 쾰른 국립 음대 교회음악학과 졸업(A-Examen)
現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
장신 콘서바토리 소장
한국오르가니스트 협회 이사장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찬양예배를 통해 진행되는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2.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3. 사명자 대회 3주째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